

# 만남

2014 11  
통권 190호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위령 성월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최 종 태 요한 마리아 비안네 주임신부

Katholische Koreanische Mission in Hamburg

<http://mannam.cathms.kr>

신부님 칼럼	삶과 죽음 —————	3
소공동체 모임 자료	늡음과 죽음(코헬 12,1-7) —————	4
주임신부님 교리	교리 80~82 -----	7
가정 교회	어머니의 기도 1 —————	10
찬 양	새벽기도 -----	11
나눔	죽음을 어떻게 살까? (마태 5,1-12) -----	12
공동체 소식	-----	13
활동단체 모임 및 연락처	-----	17
이 달의 전례 및 행사	-----	18
함부르크 한인천주교회, 월보 만남지 안내	-----	19
미사안내	-----	20

《교황님의 기도 지향》

- ❖ 일반 지향 : 외로운 사람들  
외로움으로 고통 받는 모든 이가 하느님께서 늘 그들 곁에 계심을 깨닫고 다른 이들의 도움을 받도록 기도합니다.
  
- ❖ 선교 지향 : 신학생과 수도자의 양성자들  
젊은 신학생들과 수도자들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양성자들을 만나도록 기도 합니다.

2014년 11월 칼럼글

**삶과 죽음**

위령 성월을 맞이하며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흠족해질 것이다.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마태 5,3-7)

사랑하는 예수님, 위령(慰靈)의 날입니다. 죽음을 생각하고,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죽음 후의 세계를 생각하는 날입니다. 다른 말로 삶을 생각하고, 살아있는 자신과 이웃과 형제들을 생각하고, ‘지금, 여기’의 세계를 생각하는 날입니다. 죽음은 삶과 맞닿아있습니다. 삶과 죽음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삶 속에 죽음이 있고, 죽음 속에 삶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아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요한12,24) 누구든지 땅에 떨어져 스스로 죽으면 죽음 속의 삶이 수십 배의 생명으로 열매를 맺게 하고, 죽지 않고 혼자 살려고 바둥거리면 삶 속의 죽음이 그를 삼키고 맙니다. 삶과 죽음은 하나입니다.

이승과 저승은 맞 닿아있습니다. 이승과 저승은 죽음의 다리로 연결된 하나의 세계입니다. 누구든지 죽음의 다리를 건너서 이승에서 저승으로 옮겨갑니다.

죽음의 다리는 천국과 천국을 이어주고, 지옥과 지옥을 이어줍니다. 천국과 지옥은 맞닿을 수 없습니다. 서로 다른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이승에서 사랑하고 내어주고 용서하고 비우고 낮추며 천국을 산 사람은 죽음의 다리를 건너서 천국으로 갑니다. 이승에서 미워하고 증오하고 독차지하고 앙갚음하고 싸우고 죽이며 지옥을 산 사람은 죽음의 다리를 건너서 지옥으로 갑니다.

이승 속에 저승이 있고, 이승이 바로 저승입니다.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살아있는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죽음의 다리를 건너 하늘나라로 간 사람들이지 사라져 없어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삶 속에 함께 있습니다. 죽은 사람을 위한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님, 죽은 모든 이들에게 영원한 안식과 생명을 주소서.

## ❖ 늙음과 죽음 (코헬 12,1-7)

## ◆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27장 ‘이 세상 덧 없이’ 1절을 부릅시다.

## ◆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 우리의 마음에 사랑을 심어주시는 주님, 저희 마음에 오소서.

- 저희를 기억하시는 주님, 이 시간 당신을 기억하게 하소서.

## ◆ 하느님 말씀

(진행자) 어느 분이 코헬 1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젊음의 날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불행의 날들이 닥치기 전에.

“이런 시절은 내 마음에 들지 않아.” 하고 네가 말할 때가 오기 전에.

해와 빛,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고 비 온 뒤 구름이 다시 몰려오기 전에  
그분을 기억하여라.

그때 집을 지키는 자들은 흐느적거리고 힘센 사내들은 등이 굽는다. 멧돌  
가는 여종들은 수가 줄어 손을 놓고 창문으로 내다보던 여인들은 생기를  
잃는다.

길로 난 맞미단이문은 닫히고 멧돌 소리는 줄어든다. 새들이 지저귀는 시  
간에 일어나지만 노랫소리는 모두 희미해진다.

오르막을 두려워하게 되고 길에서도 무서움이 앞선다. 편도나무는 꽃이  
한창이고 메뚜기는 살이 오르며 참양각초는 싹을 터뜨리는데 인간은 자기  
의 영원한 집으로 가야만 하고 거리에는 조객들이 돌아다닌다.

은사슬이 끊어지고 금 그릇이 깨어지며 샘에서 물동이가 부서지고 우물에서  
도르래가 깨어지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먼지는 전에 있던 흙으로 되돌아가고 목숨은 그것을 주신 하느님께로 되  
돌아간다.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읽어주십시오.

(진행자) 성경 구절이나 단어를 3번씩 기도하듯이 외쳐주십시오.

(진행자) 마지막으로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읽어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합시다.

(진행자) 성경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 ◆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이 없을 때는

-위령성월은 죽음에 관해서 한 번 더 생각하는 기회입니다. 주위의 죽음이 안타까웠던 경험이 있으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

-늘어가면서 고민이 하나둘 늘어간다고 합니다. 그런 때가 오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은 없습니까?

#### ◆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젊음의 날에 창조주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계획도 많은 젊은 날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전부이다 보면 정작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온통 ‘나’ 만 보이고 ‘너’ 는 보이지 않습니다.

‘너’ 가 보이지 않으니 ‘우리’ 를 넘어선 ‘하느님’ 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모든 걸 성취했다 여겨도 무언가 허전합니다.

그늘이 깊게 드리워지고 입가에는 쓴 맛이 맴돕니다.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란 다름 아닌 ‘너’ 를 잊지 않고 ‘우리’ 를 잊지 않고 ‘하느님’ 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하느님 앞에서 겸허해져야 합니다.

창조주 앞에 무릎을 꿇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셨음을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삶뿐만 아니라 죽음조차도 소중해집니다.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은 죽음을 자신의 누이로 불렀습니다.

그런 늪음과 죽음이라면 결코 허무하지 않습니다.

의미는 새록새록 생기를 찾을 것이고 시들어진 꽃은 다시 활짝 필 것입니다.

막혀버렸던 은총의 통로가 어느 새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다고 하니 목공의 관대함이 자신의 목숨을 구한 것이다.

#### ◆ 사제와의 통교

(소공동체의 활동 및 여러 가지 사항을 토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 자유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하십시오.

#### ◆ 마침성가 (진행자)

성가 27장 3절을 부릅니다.



## 교리80

## 성경 길잡이 (49)

## 예언서 - 입문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예언자들을 오로지 미래를 예언하는 일만 한 사람들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예언자들이 미래 세대를 위해 그리스도의 삶을 상세히 예언하면서 자신들의 대부분의 시간을 소비한 ‘점쟁이’였으리라 상상합니다. 그러나 예언자(prophet)라는 말은 ‘다른 사람을 대변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자기들과 동시대 사람들에게 하느님을 대신하여 이야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로 당시에 일어나는 사건과 자신의 처지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임금과 사제가 정신적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일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그런 때에 하느님께서서는 사람들에게 계약을 상기시키고 회개를 촉구하시고자 예언자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어 주시어 거리낌 없이 이야기하도록 하셨습니다. 예언자들은 사악한 지도자들에게는 위협을 가하고, 죄인들에게는 경고했으며, 고통 받는 이들은 위로하고 통치자들에게는 조언하였으며 도덕규범을 가르쳤습니다. 그렇지만 미래를 완전히 모른 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미래가 어찌 될 것인지에 대한 견해가 있었고,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하느님께서 하느님 백성의 구원자가 될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예언하였습니다. 흔히 그들은 그러한 구원자에 대한 희망을 자신들의 가까운 장래에 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계획안에서는 그 가까운 장래에 대한 그들의 메시지가 먼 장래의 전조가 될 수 있었습니다.

‘너희는 광야에 주님의 길을 닦아라’라는 이사야서 40장 3-5절의 예언은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빌론 유배 생활에서 고향으로 다시 인도하실 것임을 예언하였습니다. 신약성경에서 루카는 이 예언을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예고로 여겼으며, 그래서 세례자 요한을 주님의 길을 준비한 사람으로 생각하였습니다.(루카 3,4)

어떤 예언들은 예언자가 결코 상상하지 못했을 그런 방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대다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 가문이 영원히 지속되리라는 나탄의 예언(2사무 7,16)을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에 세상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훨씬 더 중요한 내용을 마음에 담고 계셨습니다. 루카 복음서 1장 32-33절은 영원히 계속될 그 왕국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왕국으로 봅니다. 신약성경의 저자들은 하느님의 영감에 의한 이야기를 돌아볼 때에 그 속에서 구약의 독자들에게는 분명치 않았을 어떤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 교리81

### 성경 길잡이 (50)

#### 예언서 - 읽기

예언서를 읽는 데 주요 원칙을 예언자들이 설교가였지 과학자나 법률가나 신학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사람들을 설득하여 행동하게 하는 것이었기에 설교가가 사용하는 모든 수단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들은 상상력에 초점을 맞췄으며, 여러 가지 형태의 언어 즉, 냉소, 은유, 비유, 역설, 과장, 재담 등을 이용하였습니다. 때로는 하느님께 받은 메시지를 행동으로 옮기기도 하였습니다. 대체로 예언서는 설교, 시, 담화, 역사적 기록의 편집물입니다. 고대에는 그러한 자료를 정확히 기록하는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언적 발언 내용이 시간과 장소적으로 다른 여러 예언적 발언에 부분 부분 결합된 것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또한 사람들의 죄에 대해 훈계하는 설교가 위로하는 이야기 다음에 놓이기도 합니다. 사고의 맥락을 끊는 그 같은 변화는 독자에게 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을 때에 훌륭한 성경 주석서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주석서는 어려운 낱말이나 구절에 대한 해석뿐만 아니라 각 예언의 배경이 되는 역사적 상황에 대한 설명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 교리82

### 성경 길잡이 (51)

#### 예언서 - 예언자의 능력

예언자는 주로 자기들과 동시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느님께 희망을 두는 선견지명이 있었습니다.

아모스는 하느님께 무너진 다윗의 초막을 일으켜 주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호세아는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새로운 혼인 관계를 예언하였습니다. 이사야는 임마누엘의 오심을 내다보았습니다. 미카는 새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고 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새로운 계약을 선포하였고, 말라키는 그 길을 준비할 사람을 약속하였습니다.

결국, 예언자는 하느님을 대신하여 이야기한 사람들로써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결코 하느님을 완전히 포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결코 메시아의 임하심에 대한 희망을 포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충실하신 하느님께 충실히 머문 이들이 늘 있었습니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분은 당신을 받아들이고 당신을 믿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발견하셨습니다.

예전에는 그리스도인이 예언자에게는 그리스도의 자세한 삶을 분명히 예견하는 능력이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요즘 학자들은 메시아사상, 곧 하느님께서 구세주를 통해 역사에 개입하시기 바라는 희망에 대해 말하길 더 좋아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희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였고 실제로 그분이 성취하였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예언서들을 읽음으로서 구약의 예언에 대한 우리의 관념이 수정되었는지... 수정되었다면 어떻게 되었는지 성찰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예언자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의미에서 있는지. 우리는 예언자인가? 예언자가 되어야 하는가?

왜 하느님께서 구약의 율법과 잔치를 세우시고 나서 갑자기 그 계획을 예수님으로 바꾸셨을까? 하느님께서 우리 구원에 대한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즉, 옛 계약을 새 계약으로 이어가고 새 계약을 통해 완성하는 것이었습니다. (마태 5, 17참조) 구약성경을 마치며 옛 계약이 새 계약으로 완성을 이루고 있음을 기뻐하고 삶에서 기억하는 우리이기를 기도해 봅시다.

비안네 신부

## 어머니의 기도 1

일치의 근원이신 하느님 아버지,  
 당신의 은총으로 보호해 주신  
 우리 가정을 당신께 봉헌합니다.  
 겸손과 순명으로 당신께 전 생애를 바치신  
 성모 마리아의 덕행을 본받고자 애쓰는 저로 하여금  
 늘 가족 모두를(또는 구체적으로 가족들의 이름을 대며)  
 진심으로 사랑하며 돌보는 가운데  
 당신이 원하시는 성가정을 이루게 해 주소서.

또한 일상의 극히 평범하고 하찮은 일이라도  
 기도로써 봉헌하며,  
 가족들의 약점을 언제나 인내로 받아들일 수 있는  
 너그러움과 지혜를 주시어 저의 삶이  
 감사와 기쁨의 봉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아멘.

“그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 속에 간직하였다.” (루카 2,51)

# 새벽 기도

329

최현숙



1. 아직 마음에 - 미움이남아 - 어 둔 상처만드니 -  
2. 아직 마음에 - 욕심이남아 - 기쁨을앗아가니 -



맑은성모여 - 나를 위 하여 - 빌 어 주 소 서



받은 모든 것 - 내 - 것 인 양 - 세 상 꾀로 살았으 나  
가진 모든 것 - 영 - 원 인 양 - 그 에 의지 할 때 에



나의 예수여 -- 내 영혼의 주인 - 나 의 - 하 느 님  
낮은 목소리 -- 그러나 강 하게 - 나 를 - 깨 우 네



그 사 랑 의 채 짝에 - 헛된 모든 것 - 죽 어 가 니



참 소 망 으 로 다 - 시 태 어 나  
참 생 명 속 에 다 - 시 태 어 나



주 당 신 을 향 하 여 - 그 빛 만 을 - 사 모 하 게  
주 당 신 을 바 라 며 - 그 길 만 을 - 사 모 하 게



여린 내 마음 에 어 둠 살 펴 주 소 서  
여린 내 영혼 에 기쁨 솟 게 하 소 서

## 죽음을 어떻게 살까?(마태 5,1-12)

‘죽음을 어떻게 살까?(Dying Well)’

호스피스 전문가인 몬타나 대학의 아이라 바이옥(Ira Byock)교수가 펴낸 책 제목입니다.

그는 이 책에서 죽어가는 사람들과 그 가족들과 지인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잘 사는 것과 잘 죽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잘 사는 것은 잘 죽기 위한 방편입니다.

잘 죽는 사람은 잘 살았기 때문에 잘 죽습니다.

삶과 죽음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삶의 한 과정입니다.

죽음으로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삶으로 건너가기 때문입니다.

지금 지구촌에는 웰빙(Well-Being 잘 삶)바람이 거세고 불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죽음(Dying Well)을 이야기하지 않는 잘 삶(Well Being)은 허구입니다.

오래오래 건강하고 재미있게 살 궁리만 하다가 갑자기 들이닥친 죽음 앞에 망연자실(茫然自失)한다면 그 삶은 결코 잘 산 삶(Well-Being)이 아닙니다.

언제 어떤 모습으로 죽음과 마주하더라도 의연하고 평화롭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삶(Well Dying)이 잘 삶(Well-Being)입니다.

대지(大地)에 깊이 뿌리내리고 여름 내 푸르고 무성한 잎사귀들로 풍성한 그늘을 선물하던 나무는 지금 갈색 옷으로 갈아입고 겨울 맞을 채비하고 있습니다.

저 나무는 잘 삶(Well-Being)이 잘 죽음(Dying Well)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무처럼 하느님 안에 깊이 인생의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이 잘 살고 잘 죽을 수 있습니다.

❖ 11월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3일	실비아 (St. Silvia)	김점선 권우애 최효진 임정희	17일	엘리자벳 (St. Elizabeth)	허(김)영란 김애리자 송옥자 송오세 박민주 최백화 한경자
			22일	체칠리아 (St. Cecilia)	김애란 이영희 이석희 신민현 김은숙 김효정 김숙
10일	레오 (St. Leo I)	최장용 김현일	30일	안드레아 (St. Andrew)	김영경 권지연
17일	빅토리아 (St. Viktoria)	김귀숙 구자옥		안드레아스 (St. Andreas)	김삼용 김성곤 허길조

❖ 11월 지방공동체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0일	레오	이진규(H)	22일	마리세실 (세실리아)	조영실(B)
16일	젤두르다	김순자(B)			
17일	엘리사벳 (St. Elizabeth)	이경희(O)	25일	카타리나	김선민(O)
		이복순(O)	30일	안드레아	이재건(O)

❖ 세상을 떠난 교우를 생각합니다. ❖

☞세월호의 희생자	(주님, 세상을 떠난 모든 이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11월 1일 ☞사제 최장정 요아킴	

❖ 우리들의 정성 ❖

주 일	9월 28일	10월 5일	10월 12일	10월 19일
계(€)	253.20	261.47	223.50	214.64
주 일	10월 26일	2차헌금		
계(€)	207.68	221.00		

❖ 11월 성가번호

11월	입 당	봉 헌	마 침
2일	228	212	227
9일	69	512	229
16일	461	342	39
23일	73	221	78
30일	89	218	91

❖ 11월 미사 전체 봉사자 ❖

11월	독 서	제 병 봉 헌	복 사	카페 봉사
2일	백정선(토마스) 이영자(헬레나)	김치수(도밍고) 김영희(클라우디아)	남궁춘배(바르톨로메오) 이정수(토마스)	위령미사
9일	강신행(토마스) 이순자(마리아)	이명자(가밀라) 강순행(말가리다)	이현목(요셉) 최장용(레오)	청년회
16일	박귀동(토마) 이선주(로사)	허순애(임마누엘라) 김잔디(아그네스)	주일학교 봉사단	요셉 마리아회
23일	최화영(시몬) 최종금(로사)	이영원(베드로) 김정옥(크리스티나)	남궁춘배(바르톨로메오) 곽케빈(요셉)	1구역
30일	김애란(세실리아) 김매자(베로니카)	김형웅(야고보) 김정자(젼마)	김진호(프란치스코) 이정수(토마스)	2구역

## ❖ 자진헌납금 ❖

9월 28일 - 10월 26일 자진헌납금 납부자 명단 :

육종인, 현영애, 오세숙, 이기열, 이종화, 윤예진, 이현묵, 김형웅, 최장용, 임정희,  
김부남, 박재형, 이정수, 박귀동, 박성아, 강신행, 손대조, 손수희, 우동천, 윤용기,  
이경규, 이공종, 이영희, 이철우, 진윤희, 최성자, 이수웅, 정마리아, 한말조

구좌입금 : 김유석, 김대현, 김동수, 김치수, 김진호, 강일남, 남궁 춘배, 허길조,  
허두욱, 최순남, 백정선, 방영자, 곽케빈, 서유미, 오옥수,

※ 납부자 중 월보에 기재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꼭 회장님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자진헌납금은 한국 천주교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 ❖ 우리가 해야 할 일들

1. 11월은 위령성월입니다. 미사 가운데 연령회의 주관으로 연도가 이루어집니다.
2. 11월 2일은 주일이며 위령의 날입니다.  
Ohlsdorfer Friedhof Kapelle 13 Fuhlsbüttler Straße 756 22337 11:00미사입니다.
3. 11월 9일(주일)에 유아세례가 있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이동빈(루카스) , - 이동윤(엘리야스), - 박요나(요나)
4. 예비자 김보경 자매님, 김경미 자매님, 김 건 형제님, 노하빈 자매님. 하느님의 아름다운 도구 되도록 기도 중에 기억해 주시길 청합니다.
5. 11월 28일(금)-30일(주일)에 본당 신부님께서 오슬로 공동체를 방문하십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 가족 공동체인 오슬로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6. 11월 29(토) - 30(주일)은 한독 바자회 날입니다. 나눔과 봉사의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시는 사목회 여성부와 각 구역 공동체, 신심단체에 감사드립니다.

## ❖ Bremen 공동체 소식

1. 10월 목주기도 성월을 맞이하여 브레멘 공동체에서는 신부님의 건강과 각 가정의 성화를 위해 기도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 저희 공동체 청년인 권준일 프란치스코 형제님과 강은지 루치아 자매님의 학업이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이뤄지길 기도합니다.

## ❖ Hannover 공동체 소식

1. 하노버 공동체에서는 매월 첫째 주 수요일 15:00시에 소공동체 기도 모임을 안토니오 성당에서 갖습니다.
2. 訃告 - 전영웅 글라라 자매님의 어머니 김복례 자매님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3. 미사 후 전례교리가 있습니다.
4. 11월 미사는 Seniorenwohnanlage 3층에서 봉헌되어집니다.

## ❖ Osnabrück 공동체 소식

1. 10월 정기미사는 10월 11일 토요일, 연중 제28주일 미사로 봉헌되었습니다.
2. 10월 25일(토), Telgte 성지에서 기도모임 겸 가을 성지순례를 합니다.
3. 이재건 안드레아 형제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한 공동체가 됨을 환영합니다.

❖ 활동단체 모임 및 연락처 ❖

사 목 협 의 회	매월 첫째 주일미사 후	만남성당	회 장	한 말 조 마리안나	040/ 5069 7342 0157 7021 0466	
구 역 장 모 임	매월 넷째 주일미사 후	예수성심성당	구 역 분과장	회장단		
주 일 학 교	매주 주일미사 후	예수성심성당	교 사	이 선 주 로 사	0176 7636 2699	
연 령 회	매월 넷째 목요일 17시 00분	만남성당	회 장	김 진 호 프란치스코	040/ 3742 0006	
레 지 오 마 리 아	믿음의 샘 Cu.	매월 첫째 목요일 평일미사 후	만남성당	단 장	강 순 행 말가리다	040/ 297 543
	자비의 모후 Pr.	매주 화요일 17시 30분	만남성당	단 장	이 순 자 마 리 아	040/ 732 1104
	평화의 모후 Pr.	매주 수요일 평일미사 후	만남성당	단 장	김 영 희 클라우디아	040/ 532 4138 0177 724 6335
	사랑의 모후 Pr. (청년반)	매주 화요일 평일미사 후	만남성당	단 장	박 성 아 베로니카	0176 8011 2329
구 역	1구역	구역장	최 화 영 시 문	8903264		
		총 무	김 정 숙 마르타	8322587		
	2구역	구역장	허 채 열 크리스티안	5709734		
		총 무	김 수 희 모니카	04106-72958		
	3구역	구역장	김 형 용 야고보	6310912		
		총 무	김 정 자 켄 마	6310912		
	4구역	구역장	정 명 옥 살로메	6448623		
		총 무	이 순 자 마리아	41091742		

❖ 2014년 11월 ❖ - 위령 성월

일	요일	전례일	기관·단체 행사	비고
1	토	모든 성인 대축일		브레멘
2	일	위령의 날	묘지미사 - 주일미사 및 위령의 날 미사	Ohlsdorfer friedhof Kapelle 13 Fuhlsbuttler Straße 756 22337 Hamburg
3	월	연중 제31주간 월요일 학생 독립 운동 기념일	2015 본당 달력 신청 준비(마감 11월 중순)	
4	화	성 가롤로 보로메오 주교	사목협의회	
5	수			
6	목		꾸리아	연차 총 친목회
7	금	입동	1구역 소공동체	
8	토			오스나브뤼크
9	일	라테라노 대성전 봉헌 축일	유아세레 - 3명 청년부 소공동체	
10	월	성 대 레오 교황 학자		
11	화	투르의 성 마르티노 주교		
12	수	성 요사팻 주교 순교자		
13	목	연중 제32주간 목요일	마리아 요셉회 소공동체(홀수달)	
14	금		2구역 소공동체	
15	토			하노버
16	일	연중 제33주일(평신도 주일)	평신도 주일 강론 - 평신도	평신도 회장님
17	월	헝가리의 성녀 엘리사벳 수도자 기념일		
18	화			
19	수			
20	목			
21	금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자헌	3구역 소공동체	
22	토			
23	일	그리스도 왕 대축일 성서주간		
24	월	성 안드레아 등락 사제와 동료 순교자들 기념일		
25	화			
26	수			
27	목		연령회	
28	금		4구역 소공동체	오슬로
29	토			
30	일	대림 제1주일	한독 바자회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본당 주일 미사 (고해성사는 미사 30분전, 미사 10분전 교리)

시간 : 매주 일요일 15시

장소 : 예수 성심 성당(Herz-Jesu-Kirche)

Bei der Hammer Kirche 12, 20535 Hamburg

평일 미사

시간 : 매주 화, 목요일 19시, 수요일 오전 10시, 금요일 각 소공동체 17시 30분

장소 : 만남성당,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 지방 공동체

### Bremen

시간 : 매월 첫째 주 토요일 17시

장소 : St. Hedwig

Kurt-Schumacher Allee 62, 28327 Bremen

회장 : 서선영(아우구스티노), Tel : 0421 255162

### Osnabrück

시간 : 매월 둘째 주 토요일 17시

장소 : Dom-Gemeindehaus(Pernikel Mühle)

Mühlenstrasse 6, 49074 Osnabrück

회장 : 최한우(바오로), Tel : 0541 37027

H.P : 0157 5436 0230

### Hannover

시간 : 매월 셋째 주 토요일 15시 30분

장소 : Kirchröder Strasse 12a, 30625 Hannover

회장 : 이범이(바오로), Tel : 0511 748945